

사회



농부에게 푸르른 농촌의 여름 20일 영암군 영암읍 들뜬에서 한 농민이 낮 최고 기온이 35.3도까지 올라간 무더위 속에서 자신의 논에 농약을 뿌리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영광원전 출력 증강 설명회

주민 반발로 무산

영광원전력 1·2호기의 출력 증강(과위업데이트)계획이 지역 주민의 반발로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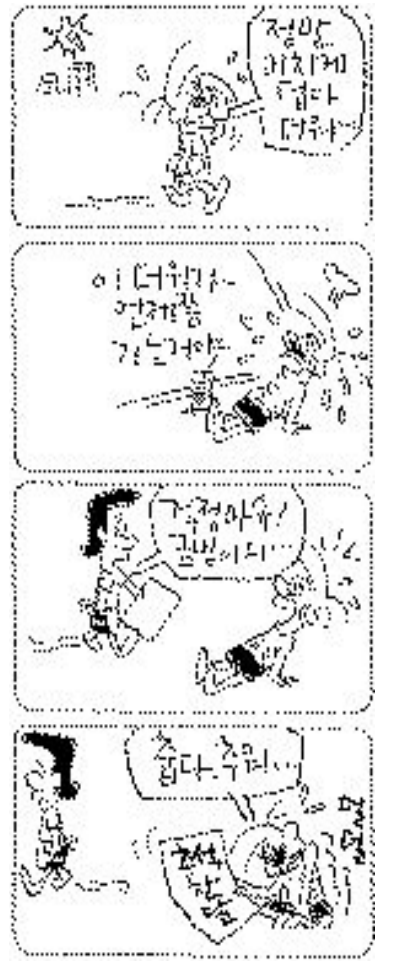
영광원전은 20일 홍농읍 복지회관에서 1·2호기 출력증강 추진 계획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원전 측과 승강이를 벌인 뒤 설명회를 원천 거부해 설명회가 무산됐다.

또 주민들 간 고성이 오가는 불협사나운 장면이 연출됐다. 주민 대표로 나선 김도 씨는 "출력 증강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설명회는 무의미하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출력 증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력증강은 발전소가 보유한 설비 안전 여유도 범위 내에서 터빈 증기 유량을 증가시켜 원자로와 전기 출력을 약 4.3% 향상시키는 작업이다. 현재 95만kW로 운전 중인 영광원전 1·2호기에 대해 출력 증강이 이뤄지면 100만kW대로 운전할 수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나원침 (8099) 김종두



초등생 납치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20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의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과거 성행에 비취를 때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인하고 비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 가족, 이웃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를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이 출소하게 되더라도 주거지 시·군 소재의 초·중학교와 유치원, 아동보육시설에 출입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도 접근하지 말도록 했다.

/연합뉴스

'민청학련' 김상윤씨 무죄

긴급조치 위반 8명 면소

서울고법 형사1부(조혜련 부장판사)는 20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된 김상윤(광주문화도시시험의회 상임대표) 씨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위반 혐의에는 면소를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현선 씨 등 8명에게도 면소가 선고됐다.

김씨는 1974년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등에 대한 민청학련 명의의 반박 선언문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위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아내 목걸이 슬쩍 팔고 "도둑이야"

○"돈이 부족해 아내의 결혼 목걸이를 훔쳐 판 걸 없는 남편이 경찰서엔

○"2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3)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자신의 집 안 방장롱 속에서 420만원 상당의 아내(51) 목걸이를 훔친 뒤 인근 금은방에 200만원을 받고 판 걸

○"김씨는 절도범이 침입한 것처럼 안방의 옷장·서랍장을 흐트러놓고 집을 나갔는데, 아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승강기 등에 설치된 CCTV 화면분석 결과,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남편 김씨가 집에 드나든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

○"김씨는 경찰에서 "매달 아내에게 받는 용돈 50만원으로는 생활이 힘들어 목걸이를 훔쳤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바뀌는 수능 수험생 부담

대학이 열쇠 쥐었다

A형·B형 활용에 달려

20년 만에 확 바뀌는 수능시험이 과연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줄지, 고교 교육을 제 틀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록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중장기 대입선진화 연구회가 19일 수능체계 개편안의 일계를 발표함에 따라 이제 공은 대학으로 넘어간 셈이 됐다. 실제로 각 대학은 2014학년도 수능시험을 치르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내년 3월까지 대학별로 수능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기본적인 전형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수험생이 고교 1학년 때부터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기준에 맞춰 A형이든 B형이든 국어·수학·영어 기초역량의 기반을 닦아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연구회 세미나에 지경도론자로 참여했던 이기범 숙명여대 입학처장은 "A형과 B형으로 나뉜 수준별 시험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대학이 키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어·수학 둘 다 어려운 B형(현행 수능 난이도)을 선택할 수 없게 해 인문사회계는 국어B·수학A, 이공계는 국어A·수학B로 수렴될 공산이 크지만, 영어는 A형이나, B형이나에 따라 대학 간, 심지어 같은 대학 내 전공 간

에도 서열을 매기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상위권 대학은 A형 선택을 고집하고 중하위권 대학은 A·B형을 다 열어놓되 A형만 선택하도록 하는 대학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문과라도 경영대처럼 수리 능력이 필요한 전공에서는 수학 B형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이공계라도 영어는 A형보다 B형을 선호하는 대학이 많이 나올 수 있다.

2013년부터 대학별 고사를 완전 자율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큰 변수로 등장한다. 이기범 처장은 "대학 입장에서 수능으로 가려내지 어려운 주변 눈치를 기반으로 한 대학별 고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3년 대학별 고사 자율화와 2014학년도 수능 대개편이 맞물리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입 전형이 주류를 이룰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름 사이에 1, 2차 시험을 치르고 그것도 A형, B형으로 나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서로 다른 기준의 4가지 성적을 갖고 학생들을 평가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백분위 변환표준점수제로 난이도의 차이를 없앤다고 하지만 자칫 난문사회계는 국어B·수학A, 이공계는 국어A·수학B로 수렴될 공산이 크지만, 영어는 A형이나, B형이나에 따라 대학 간, 심지어 같은 대학 내 전공 간

/연합뉴스

오현섭 '2억 뇌물' 영장

1억원 시의회 로비·1억은 선거홍보비 사용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일 도심 시설물 공사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오현섭(60) 전 여수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여수시장 간부 김모(여·59·구속)씨를 통해 야간경관조명사업 시공업체로부터 1억원씩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애초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6천여만원의 어딘에 썼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구속영장은 적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2억원 가운데 1억원

은 오 전 시장의 사돈인 주모(중국도피)씨에게 전해져 여수 시의회 로비에 사용했으며, 나머지 1억원은 구속된 김씨가 보관하면서 오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홍보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해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여수시장 간부 김모(여·59·구속)씨를 통해 야간경관조명사업 시공업체로부터 1억원씩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록적 폭염에 쏟아지는 기록들

기온 30도 이상 55일·열대야 24일 최대 전력사용량 날마다 갈아치워 열음·빙과류 매출 최고 60% 급증 에어컨 등 판매량 650%까지 치솟아

폭폭 찌는 듯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지역의 각종 '여름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우선 광주 지역 열대야 일수가 10년 만에 가장 길었고, 최대 전력 수요 기록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빙과·음료 업체는 가마솥 더위에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열대야 24회 지난 10년 중 최장=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0일 현재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 기록한 날은 55일이다. 지난해에는 29일이었다. 이는 2000년 이후 최장 기록이다. 33도 이상 기록한 날도 13일이나 됐다.

올 여름 열대야 일수가 24일을 기록, 10일을 기록한 지난해 열대야 일수를 두 배 이상 넘어섰다. 지난 10년간 열대야 일수가 가장 길었던 해는 2008년으로 22일이었다. 이달의 낮 평균기온은 32.6도. 이는 평년 기온 31.2도보다 1.4도 높은 수치다.

◇최대 전력수요 기록 연일 경신=에어컨과 선풍기, 냉장고 등 더위

를 이길 수 있는 가전제품 풀 가동으로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올 여름 들어서만 6 번째다. 한편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광주·전남 전력 사용량은 443만kWh를 기록했다. 이는 올 여름 최대 수요전력 수치다.

지난해 여름 피크 타임 최고치는 414만kWh(8월 19일)이었다. 올 여름 무더위가 다음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최대전력 사용량 기록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전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열음·아이스크림·생수 판매량 급증=아이스크림·열음·생수가 무더위 덕분에 판매량이 늘고 있다. 광주시 남구 F편의점 주인은 아이스크림과 생수 매출이 전월보다 60%·30% 각각 상승했다고 말했다.

북구 오치동 M편의점도 이달 들어서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0% 늘었다. 또 다른 가전제품 매장도 이달 들어서만 여름 가전제품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올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F편의점 주인은 "지난달 초까지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56분 해질 19시 15분 달돋이 17시 08분 달질 02시 28분 나무 그늘 아래로 대체로 맑겠으나 늦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광주 25/34, 목포 25/32, 여수 25/31, 완도 24/33, 구례 24/35, 해남 24/33, 장흥 24/33, 고흥 24/33, 순천 24/34, 영광 24/34, 진도 24/33, 남원 23/34, 흑산도 23/2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1.0m 1.0 1.0 1.0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1.0m 1.0 1.0 1.0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0.5m 1.0m 00:04 05:38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1.0m 07:02 01:20 <주간 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민행선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27(금) 날씨 최고/최저 25/34 24/32 24/31 24/31 24/31 24/31

폭염·열대야 주말·휴일 막바지 피서객 몰릴 듯

주말·휴일 막바지 피서객 몰릴 듯

주말인 21일과 휴일인 22일 광주·전남 지역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막바지 피서에 안성맞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1일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다"며 "휴일인 22일에도 맑은 날씨가 지속돼 물놀이를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전남지역 주요 해수욕장에 몰릴 것"이라고 20일 예보했다.

주말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이며,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을 기록해 한낮에 피서를 즐기는 피서객들은 자외선차단제와 얇은 긴팔 상의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광주·전남 일부 지역 열대야와 무더위는 다음주 초까지 계속되다가 점차 평년기온(낮 최고 28~30도)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전·현 여수시의회 10여명 출국금지

오현섭 측근에 돈 받은 혐의

오현섭 전 여수시장 측근 주모(67)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여수시원들에게 경찰이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수경찰은 20일 "주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전현직 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

렸다"며 "수사는 10명선이지만 명단 공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여수시의원들은 애초 오는 23~26일 10명, 9월 27~30일 14명 등 두차례로 나눠 여수박람회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 엑스포 현장을 방문기로 했으나 경찰 수사 등에 따라 방문을 무기한 기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